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13.(금) 10:00 배포 2026.11.13.(금) 07:30

아동·청소년의 목소리,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담는다

- 개인정보위,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청소년자문단 '온세이버'의 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11.13.)
- 아동·청소년이 직접 점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지우개 서비스 등의 개선 방안 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3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청소년자문단 '온세이버(ON-SAVER)' 소속 학생 4명 및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온세이버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자문단으로,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디지털 정책과 서비스를 직접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온세이버 학생들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수집·이용 동의 화면, 지우개 서비스 등을 직접 점검하고,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행사에서 온세이버 학생들은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개인정보 보호 권리행사의 편의성 제고, ▲지우개 서비스 개선 등 3대 정책과제를 개인정보위에 제안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방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연령과 서비스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선택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 및 동의 철회 등 권리행사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우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신청 절차 간소화, 타인이 게시한 개인정보 등으로 지원 범위 확대, 신청 이후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학생들이 제안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정책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이 제도와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보고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안을 정책 개선 검토 시 참고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선택하며, 필요할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1월 17일 개인정보위가 개최하는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간담회」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추진중인 개선방안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2-2100-3051)
		담당자	사무관	고채린	(02-2100-305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